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기너를 애도하며
悼妓

육골은 뼈 무덤 속에 묻히었으니
금화로엔 저녁 향내 스러졌구나.
버들은 소소(蘇小)에 집 가려 감추고
봄꽃은 설도(薛濤)의 무덤 들렀네.
하룻밤 꿈 진루(秦樓)의 달빛과 같고
외로운 님은 초협(楚峽)의 구름인 듯해.
해마다 긴 방주에 돌아난 풀들
층층이 치맛자락 배우는구나.

난리통에 중앙형을 만나고 보니
쳐랴고 고향과는 같지 않구나.
비람 먼지 맞으며 지팡이 짚고
강해에서 국화주 마셔본다네.
옛 수자리 저 멀리 불피리 소리
황량한 성 성문도 일찍 닫누나.
병장기가 천지에 가득 하거니
이리저리 떠도는 삼 말할 게 있나.

喪亂看今日
淒涼異故園
風塵桃李杖
江海菊花樽
古戍遙聞角
荒城早閉門
年久大堤寒
空學舞時裙

9월 9일 무안현 사호에서 술을 마주하고 짓다
九月九日 在務安縣沙湖 對酒有作

빛 바랜 사진 한장

■ 권오진 (추밀공파 35세)

1969년 아내와 내가 소속돼 있던 산악회에서 당시로서는 아주 낙후된 섬이었던 울릉도의 성인봉을 등반했는데, 당시만 해도 울릉도에는 숙박업소가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이틀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0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산악회에서는 그 초등학교의 학생들(당시 5학년) 10명을 서울로 초청해서 1주일간 각종 산업체와 방송국 등을 견학시켜 주었습니다. 당시 울릉도에는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002년에 나는 우연히 그들이 서울 견학기간 중에 서울대학교(당시, 동승동)에서 찍었던 빛바랜 기념사진을 앨범에서 찾아냈고,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진을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사진속의 학생들 중 사진을 보는 사람은 내게 연락해 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래 사진이 그때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올랐던, 70년 여름 서울대학교 대학원(동승동) 정문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이 지난 후 어느날, 나는 그중 한 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는 이춘성 씨는 울릉도에 살고 있는 누님으로부터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자신들이 초등학교때 서울에 견학을 갔던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너무나도 놀랐고 반가운 마음에 즉시 내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울에 견학을 갔던 일행 중에 급히 연락이 되는 45명이 금명간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춘성 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는데, 서울 종로에 있는 모 음식점에 저녁식사 예약을 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윗줄 좌로부터, 산악회회원 김두영, 임태산, 한 사람 건너 산악회장 이승병(서울대 대학원장), 한사람 건너 최경숙(본인의 아내) (촬영 권오진)

나는 70년대초의 산악회 회원이었던 몇 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지정한 날 지정한 시간에 약속장소로 나갔고, 30여년 만에 그들(4명)과 감격적인 재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 까마득한 옛 이야기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그들은 이미 40대 중반의 장년이 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성실한 사회인이 돼 있더군요. 그로부터 그들과 가끔 안부를 주고 받았는데, 그들 중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이춘성 씨로부터 최근에 메일을 받았습다.

나는 이 메일을 받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 하찮은 이해관계 때문에 굳게 맺은 인연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오늘날의 세태속에서도 참된 인연은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급년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대구에 한 번 가야겠습니다. 돈을 주고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인연을 찾아서...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서울의대 정문 옆에 히포크라테스의 동상이 서 있다. 서울의대 구내에 들어서면 누구에게나 눈에 띈다. 의사가 되려면 누구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읽고 가슴에 품고 생활하도록 요구된다.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BC460? ~ BC370?)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이다. 에게 해(Aegean Sea) 코스 섬에서 출생했으며 '의학의 아버지' 또는 '의성(醫聖)'으로 불린다. 그의 생애에 관하여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그가 일생동안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여행하며 의학을 실시하였고 코스 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프로타고라스>와 <파이드로스>에서 히포크라테스는 인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철학적으로 의학에 접근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병은 신벌(神罰)이라는 미신을 배격하고 관찰과 경험을 중시했으며, 병의 원인은 부적당한 식사로 인해 소화되지 않은 잔

류물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의 저서는 약 70권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60권 정도이며, 해부학·임상·수술 등을 다룬<히포크라테스 전집>은 BC 3세기 무렵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정리한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의 아버지'·'의성'으로 존중받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그의 선서문을 보면 더욱 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문
의신(醫神) 아폴론, 아스크레피오스, 히기예아, 파나케이아, 기타 모든 신들 앞에서 나는 선서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판단을 다해 다음과 같은 선서를 실행합니다.

이제 직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학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

로 생각하겠노라. 나의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직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류·종교·국적·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至上)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만일 내가 이 선서를 지키고 깨뜨리지 않는다면 나의 생활과 의학에 성공을 주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명예를 안겨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지키지 못한다면 나에게 정반대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이상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조항별로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원문에는 이러한 구절도 있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을 다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환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리한 일은 절대로 아니한다. 부탁을 받는 다 해도 독약을 주지 않는다. 일생을 통해서 신성한 의학을 지키고 기술을 연마한다. 결석(結石)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쇄석술(碎石術)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문 술자(術者)에게 맡긴다.'



투고

'농촌(農村)'



毛村 權五福(본지 편집위원)

느티나무 그늘 아련한 기억 지금은 많이 변한 고향 나의 고향은 경북 상주.

상주는 명특산물이 '쌀'과 '누에' '꽃감'이며 이어 일제강점기인 1925년 11월 경북 상주시에서 조선8도 자전거

대회가 열려 '자전거의 고장'이며 또한 2010년 10월에 세계대학생 승마대회가 상주에서 개최되어 '말(馬)'의 고장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나는 낙동강 1300리가 유유히 흐르는 상주시 낙동, 구상, 모산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농촌을 떠난지 40여년이 되었다.

이제 향수에 젖어 고향의 흙냄새 자연이 그리워지고 있다.

밤낮으로 자동차가 개미처럼 잇대어 달리고 있는 서울의 거리, 그 한쪽 차마

폭 만큼의 땅에도 연립주택이 들어서고, 앞마당 크기의 빈터라도 있으면 어김없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도시의 일상은 쫓기듯 분주하지만 정자 이웃과는 전혀 다른 벽을 쌓았다가 바람처럼 떠나면 그만이다.

시간시간의 적막, 하루하루의 생계와 잘 살기 위한 나홀로만의 생존이 있을 뿐이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여유와 정겨움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그렇게 기원하던 공업화, 현대화가 가져다 준 '서울'의 기형적 모습이다. 좋은 것, 나쁜 것이 실태처럼 뒤엉켜버린 수도권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발 곳은 어딘가.

도시의 모든 이들에게 고향이란 말이 어머니 품처럼 정감있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진실이다. 물론 제각각 태를 뚫고 유소년을 보냈던 그런 고향이 아니어도 좋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자연의 품속에 오순도순 더부살이하는 농촌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네 고향 농촌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늘 전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다. 집 앞에는 내와 논밭이 있고, 마을 뒤 크고 작은 산에는 나무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한 여름에는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이

있고, 모정도 있다. 겨울에는 마을 사랑방이나 부잣집 바깥 사랑방이 있다.

마을의 대소사가 논의되는 그런 공간이며, 간혹 나그네가 부담없이 쉬어가 는 그런 공간으로 말이다.

종가와 대가집을 중심으로 음식과 정을 나누어 사는 사랑의 땅이 끝없이 이어진다. 사랑과 정담, 내의 소식, 충고와 질책의 교화교육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결돼 있다.

일과 휴식, 작업과 놀이가 계절적으로 구분되고, 가진 것을 떠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인정되고 서로를 아껴주는 곳이다.

우리의 자연생태계가 펼쳐있고, 질 좋은 유기질 농산품을 산출하는 농촌은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그야말로 도시인의 생명줄이고, 서울 사람의 원향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원향 농촌에는 어린애 울음소리가 그쳤다. 오로지 우리 386세대들을 안아 키운 부모님만 늙수그레하게 지치고 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 농촌을 살리자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자. 모든 공직자 사회자 도충은 물론이고 위로는 대통령부터 임기 후에는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풍조가 필요하다.

실패한 모든 이들이 고향의 자연과 어른들은 항상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 다.

기행문

先進 西部유럽 探訪

■ 권계동 (대중회 부회장)

2) 프랑스 역사가 담긴 노틀담 대성당

성당내부에는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한 수많은 조각들이 있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4가지 색깔의 글라스인 장미로 된 창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곳은 나폴레옹 등 많은 국왕들이 대관식을 올린 곳이기도 하다고 한다. 각종 조각과 그림을 통하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나타내고 있었고 창문의 그림, 중앙의 황금색 십자, 벽에 조각된 각종 조각품들은 정말 신기하게 보였다.

3)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에펠탑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에 세운 높이 320.75m의 탑으로 구스타프 에펠이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엘리베이터를 일행모두가 함께 타고 150m 지점에 와서 두 탑으로 나뉘어져 다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275m까지 올라갔다. 전망대에는 에펠과 에디슨이 이야기하는 모습의 모형도 볼 수 있었다.

전망대에서 탑 아래를 내려다보니 안



개가 약간 끼어있는 상태라서 먼 곳의 경치를 볼 수 없어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샹드 마르스 공원, 나폴레옹의 유해가 있다는 앵발리드, 로망 미술관 등이 자리 잡고 있음은 볼 수 있었다. 건너편 사이오 박물관에서 보는 에펠탑의 야경은 장관이라고 했으나 그 화려한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전망대에는 각국의 국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태극기도 있어 이를 배경으로 모두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곳에서 여러 나라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었고 보이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확대하여 게시해 두고 있었다. 내려올 때에는 150m 지점에 시설되어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변소에서 용변을 보고 내려왔다.

4) 화려한 상젤리제 거리

상젤리제 거리는 파리만이 아니라 세계

적으로도 유명한 길이 2km의 대로였다. 개선문을 기준으로 뻗어 있는 12개의 방사형 길 중에 정면으로 있는 가장 큰 길이의 거리였다.

양쪽에 이롭나 상점, 식당, 영화관, 여행사가 즐비하며 화려한 거리의 노상 카페가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다. 이곳은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였으며 유명한 리도 극장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면으로 개선문이 보이는 폭이 72m 되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리였다.

5)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

개선문은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의 승리를 기념하여 고대 로마의 개선문을 본떠 세웠다고 하였다. 공사기간만 3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거대한 문 높이가 49m, 폭이 45m나 된다고 하였다.

개선문 앞에서 상젤리제 거리도 바라보고 개선문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후 버스를 타고 콩코드광장까지 천천히 오면서 좌우를 둘러보았다. 루이 15세 광장이라고도 하는 곳의 기마상, 초록빛을 띤 여자들의 조각상, 쌍둥이 건물 등을 보았다.

(다음호에 계속)

이달의 시

별 님은 곁은 달빛 고을 밤에만 핀다더라

미리내가 내려주 그림자 작은 초봄의 밤

한 떨기 꽃 피우네기 위해

꽃들 밝혀 하얗게 지세우며

경건한 기도의 눈 감는다

물안개 짙가는 적만의 내지

노을부터 너 놓고 바라보던 파래진 영육이

지지도록 기다린 밤

청하 권 대옥

1961년 경북 포항생/서울 거주. 39세(九字들림). 북극공 서주공계/영천신림참판공자파 종도계.계간 文藝地평 詩부문 등단. 문화예술TV21 편집부위원. 가래문학 사무국장한글문인협회(중앙) 회원. 시와 창작 작가회 회원. 시와 수성문학 동인. 소로문학 동인.

탄생!! 프리미엄 소형세단 엑센트



현대자동차 CarMaster

(100-420)서울 중구 무학동 1번지(삼민빌딩 1~2층)
 상담지점 : (02)2253-2033
 FAX:(02)2237-2595

과장 권赫先 (이천·북아파트, 36번)
011-222-6766

암(癌) 및 성기능장애·혈액순환장애 치료 전문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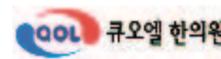
암(癌) 성장억제 · 면역치료 · 자연치유

- 말기암 치료
- 전이재발암 치료
- 재발방지 치료

성기능 · 혈액순환장애 치료

- 발기부전 치료제 정기현~큐!
- 조루증 치료제 정기현~일!
- 혈액순환치료제 쾌혈~현!

중진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큐오엘 한의원”이 되겠습니다.



큐오엘 한의원 무료 080-000-7579
 http://www.qol-clinic.com 전화 02-6927-5000

진료원장 권순관 대체의학연구원장 권혁운 올림